

일제시기의 쫑 디자이너 “엘리자베스 키스”의 예술세계①

글_ 남상욱(쫑수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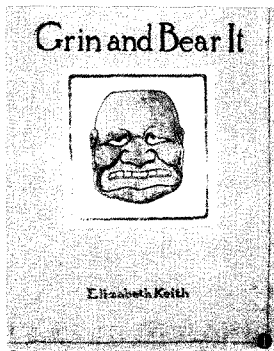
● 국내 크리스마스 쫑의 역사는 황해도 해주에서 결핵요양원인 “해주주세요양원”을 운영하였던 셔우드 홀(Sherwood Hall) 박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박사는 결핵퇴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일제 강점기인 1932년부터 1940년까지 9년간 크리스마스 쫑을 발행하였다. 국내 최초의 쫑인 1932년 도안은 박사가 직접 그린 거북선이었으나 총독부 위무성 관리의 반대로 승인이 되지 않자 조선을 상징하는 서울의 남대문으로 수정하여 발행하였다. 이후 1940년까지 쫑 도안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내국인 3명, 외국인 2명에 의해 도안되었으며 이 중에서 무려 3회에 걸쳐 쫑 도안을 디자인한 인물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여사이다.

영국에서 태어난 여자가 어떠한 사유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일제시기 조용한 아침의 나라인 조선을 방문하였으며, 크리스마스 쫑 도안을 3회씩이나 디자인한 것인지 평소에 너무나 궁금하였다. 그 후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사에 대한 각종 저서, 도록(圖錄), 판화 인쇄물 및 쫑 도안과 관련된 자료를 필자가 직접 수집한 것을 계기로, 쫑과 관련된 여사의 활동과 예술세계를 2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한다.

연도별	1933년	1934년	1936년	1940년	1935년	1937년	1938년	1939년
도안가	YMCA 화공	Elizabeth Keith (영국)		최신영 (崔信榮)	김기창 (金基昶)	Esmond New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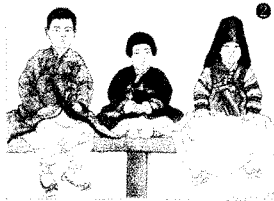
엘리자베스 키스(1887~1956)는 누구인가 ?

엘리자베스 키스는 1887.4.30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버딘셔(Aberdeenshire)에서 태어나 12세 때인 1898년에 런던으로 이주하였다. 여동생 둘과 남동생이 한 명이 있었으며 여동생 중 한명인 엘스펫(Elspet)으로 인하여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 여동생 엘스펫은 당시 New East Press의 편집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 로버트슨 스콧(Robertson Scott)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20대



후반의 나이인 1915년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의 문화와 미술을 접한 후 동양의 예술세계를 흠모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미술을 더 공부하기 위하여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며 일본화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키스는 일본 채류 중인 1917.11.22에 "Grin and Bear it" [그림 ①]이라는 캐리커처 모음집을 제부(弟夫)인 로버트슨 스콧을 발행자로 하여 당시 일화 5원에 일본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은 각국의 저명인사를 회화(戲畵)화 시킨 책으로 발매 후 매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일본 미술계에 알리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키스는 4년 후인 1919년 3월 28일에 3.1운동의 여진이 채가 라앉지 않은 조선 땅을 동생과 함께 방문하기로 하고 부산을 경유하여 열차로 서울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조선의 여러 지역

을 여행하고 많은 인물과 풍경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6개월 가량을 조선 땅에 머문 그는 일본으로 귀국 후 1919년 말에 한국에서 그린 그림으로 동경에서 수채화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외국에서 한국 풍물을 소재로 전시한 최초의 전시회가 된다. 당시 동 전시회를 방문한 일본 판화업계의 대부인 '와타나베 쇼자부로(渡瀬三郎)'의 권유에 의해 수채화 중 일부를 목판화로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본에서 정식 화가로 인정받고 이후부터는 본인이 그린 대부분의 작품을 목판화로 출판하였다[그림 ②]. 또한 동경에서의 전시회를 시초로 런던, 파리, 미국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풍물과 민속을 여러 차례 해외에 알린, 한국을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이었다.

조선에서의 활동

한국에 처음 도착한 1919년에 그는 당시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선교사무실에 여장을 풀 후 여행을 하였는데, 그때 묵은 감리교 선교사무실은 서울 동대문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의 전신이다. 1919년 이후에도 키스는 여러 차례 조선을 방문하여 서울 이외에 금강산, 평양, 원산, 함흥까지 여행하면서 풍경과 백성들의 살아 있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1921년 9월 20일과 22일 양일간은 서울의 소공동(당시는 하세가와 거리(長谷川町)라 하였음)에 있는 은행집회소에서 채색 판화 및 수채화에 대해 제1회 개인전을 개최

하였다. 9월 20일은 청첩장을 소지한 초대 손님에 한하여 입장하도록 하고, 22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공개하였다. 이는 한국의 풍속화를 주제로 서양의 여성화가 서울에서 개최한 최초의 전시로 미술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 하겠다. 또한 1934년 2월 신세계 백화점의 전신인 미쓰코시(三越)백화점 내 화랑에서 한국의 풍물을 소재로 한 제2회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퍼시픽 아시아 미술관의 리처드 마일즈(Richard Miles)가 1991년 발행한 여사의 판화 작품집(Elizabeth Keith the printed works)[그림 1]을 보면 판화 108점 중 조선을 소재로 한 작품이 30점으로 일본의 체류기간이 길었음에도 작품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아 여사는 진정으로 조선을 사랑한 서양화가가 아닐까 싶다.

1930년 그녀가 조선에 묵는 동안 크리스마스 썰을 제작한 셔우드 홀 박사의 어머니인 로제타 홀(Rosetta Hall)의 집을 거처로 정하고 여러 차례 여행을 하였다. 이를 인연으로 홀 박사가 여사에게 썰에 대한 도안을 부탁하게 되었으며 판화가 와타나베가 판화로 이를 제작하고 크리스마스카드를 만들었다고 홀 박사는 자신의 자서전(With stethoscope in Asia : Korea)에서 이를 기술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키스의 예술과 작품세계

그녀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 알려진 것은 여사가 일본에 체류하며 미술 공부를 하는 동안 일본의 화가 중 한사람이 여사의 초상화를 그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저명한 화가이며 마인화의 1인자인 '이토 신수이' (伊東深水 1898~1972)는 자신의 작품 활동 초기인 1922년에 그녀를 모델로 한 초상화[그림 2]를 그린 적이 있는데, 이 초상화가 목판화로 제작되어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이 원색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작품의 명칭은 "Portrait of Miss Elizabeth Keith"). 본 작품의 제작 시기는 1922년 3월경으로 그녀가 36세 때이다. 푸른색 눈에 금발을 지닌 고귀한 기품을 지닌 상당한 미인의 모습이다. 특히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하여 바다에 앉아 있는 모습에서 동양권의 문화에 이미 익숙해진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키스의 초상화를 그린 이토 신수이는 당시 25살의 청년이었는데, 키스가 일본 풍속화에 관심을 갖고 젊은 화가들과 교분을 쌓는 중에 초상화 모델이 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일본 우표취미주간의 경우 도안은 일본의 전통적인 미인화 중에서 주로 선정하는데, 1974년 우표취미주간은 신수이가 그린 “指(손가락)”[그림 5]을 선정하였다. 이는 1922년 개최한 평화기념 동경박람회에서 2등을 수상한 작품으로, 우표로는 5,000만매가 발행되었다.



엘리자베스 키스의 화풍과 목판화

키스가 대부분의 작품을 판화로 제작한 내력을 살펴보면, 1915년에 일본을 방문할 당시 일본에서는 신판화(新版畫)기법이 성행하였다. 판화제작에는 창작판화와 신판화의 두가지 기법이 있으며, 창작판화란 작가가 원도를 그리고 이를 밑그림으로 하여 직접 판을 조각하고 채색하여 종이에 찍기까지의 전 과정을 작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신판화란 작가가 밑그림을 그리면 이를 목판에 조각하는 장인[조사(彫師)라 함]과 채색하여 종이에 찍는 장인[접사(摺師)함]이 있어 공동작업으로 판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 모든 과정이 화가 이외 여러 장인들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며 이 경우는 보통 판화 출판업자가 판화를 전문적으로 제작 출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키스는 대부분의 그림을 신판화에 의한 채색 목판화 기법[그림 6]으로 제작하여 출판하였으며 현재까지 많은 작품이 남아있는 계기가 되었다.



키스가 일본에서 습득한 화풍은 당시 일본 미술계를 풍미한 일본화로서 이를 일명 우끼요에(うきよえ; 浮世繪)라고 한다. ‘우끼요에’는 색채가 강렬하고 선과 구도가 단순하며 원근법을 무시한 평면적 경향이 강한 그림으로 서민의 삶을 그린 풍속화이다. 형태는 대부분 채색목판화로서 17~19세기 에도(江戸)시대 일본미술의 특징을 담고 있다. 부세(浮世)란 떠다니는 세상, 소위 현세를 말하는 것으로 부세회(浮世繪)란 결국 현세의 살아있는 생생한 그림을 뜻한다. 조선의 경우는 진경산수(眞景山水)나 문인화와 같은 전통적인 수묵화를 근간으로 하는 격조 높은 풍토에서,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을 기반으로 하는 통속적인 일본의

‘우끼요에’를 배타시하였다. 그러나 우끼요에는 당시 만국박람회를 통하여 유럽에 널리 알려져 고흐(Vincent van Gogh), 마네(Edouard Manet), 모네(Claude Monet)등의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자신의 귀를 자른 천재 화가 고흐가 이러한 Japonism(일본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서양미술사 측면에서 대단히 놀라운 사건인 것이다. 화려하고 간결한 우끼요에를 바탕으로 오늘날 일본은 캐릭터 상품과 만화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매년 발행하는 우표취미주간(切手趣味週間)의 기념우표[그림 7]는 우끼요에 화풍의 미인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녀가 그린 조선의 풍물도 우끼요에의 화풍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키스는 목판화 작업 이외에 전시회도 왕성하게 여는 한편 여러 권의 작품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일본의 북해도와 조선, 중국, 필리핀을 여행하며 각국의 풍물을 그린 “Eastern windows” [그림 8]는 125쪽의 책으로 1928년도에 출판되었으며, 조선의 그림을 맨 처음에 게재하고 있다. 런던의 스튜디오 출판사에서 1933년 출판한 “Masters of the color print” [그림 9]는 9명의 판화 대가들 중 한사람으로 여사를 선정하여 여사의 작품 중 8개의 목판화를 담은 책이다. 1919년 동생인 엘스펫과 조선을 여행한 후 이에 대한 여행담에 대해 동생이 글을 쓰고 여사의 수채화 39점을 칼러와 흑백으로 작성하였으나 태평양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이 끝난 1946년 출판한 “Old Korea” [그림 10]은 그녀의 제부인 로버트슨 스콧이 허친슨(Hutchinson)출판사를 통해 발행한 것으로 조선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집이다. (다음호에 계속) 卍

[참고문헌]

-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송영달 옮김) 출판사 책과함께
- 논문 “광복 이전 한국과 일본의 디자인 관련 교류에 관한 연구” (박암중)
- Elizabeth Keith the printed works (Richard Miles)

